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의 시작

2023

제주문화예술심  
프로젝트

Season 3.

# Contents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소개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개요 4

제주문화예술섬 세부 프로젝트 소개 6

### Part 1. 2023 제주문화예술섬 —— 연결+더하기

제주의 유희공간,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다 10

—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12

### Part 2. 2023 제주문화예술섬 —— 가치+더하기

같이, 가치롭게 지역 문화의 내일을 실험하다 22

— New안덕계곡&New저지 예술제 24

— 살면 살아지쿠다 27

— 제주환상 29

— LOCOCO 프로젝트 32

— 물길 따라 마을 마실 34

— 화북문화공단 프로젝트 36

— 2023 7차:가치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가치 나눔:다 가치(같이)」 38

— 참여 공간이 직접 전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46

### Part 3. 2023 제주문화예술섬 —— 예술+더하기

—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54

— 참여 아티스트 55

— 프로젝트 진행 방식 소개 59

—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이야기 69

### Part 4. 2023 제주문화예술섬 —— 내일+더하기

— 2023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78

### Thanks to —— 함께한 사람들

— 모두에게 박수를 8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 제주 어디서나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는 제주시 216개 마을,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고유하게 축적해 온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마을마다 고유한 문화예술의 봉화를 띄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Jeju Culture & Art Island



Jeju Culture & Art Island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로고는 상하좌우로 뻗어나가는 획으로 섬 곳곳을 가로지르며 문화예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았다.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과정

2016년

-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제주연구원, 2016)
- '제주의 가치 창조, 문화예술의 섬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 연구 진행

2019년

- '제주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제주연구원, 2019)
- 제주 도민과 도내 예술가, 제주 이주민, 국내외 예술가가 연결되어 함께 예술을 향유하고 즐기는 정책 방향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 3(문화예술의 섬 조성)이 포함된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부서 미래문화팀 신설
- 민간 문화공간 기초 조사 및 분류(전시, 공연, 독립 서점, 커뮤니티)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간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주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1년

- 조천리 야학당, (구)중문119센터 리모델링, 오픈식
- <가치:가치 프로젝트> 4개 권역 대표 프로젝트, 권역 무관 우수 프로젝트 3개선정 및 지원
- 예술요원, 도내 예술가가 협업하여 읍면 문화소외지역 공연 및 교육 진행
- 제주문화예술재단 20주년 상반기 포럼, 하반기 네트워킹 데이 <돌연변이들: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력> 진행
- 2021 제주 문화 인식 조사, 제주문화예술섬 과제 발굴 진행

2022년

- (구) 중문119센터-꿈꾸는 예술터사업에 선정
- <가치:가치 프로젝트> 총 2개 우수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 예술요원, 도내 예술가 협업 읍면문화소외지역 공연 및 교육 진행
- 제주문화예술재단 하반기 네트워킹 데이 <미래를 위한 실천> 진행을 통해 ESG 및 환경과 예술에 대한 담론 제시

# 제주문화예술섬 세부 프로젝트 소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1년까지 진행해 온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에 '제주문화예술의 섬 정책과제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메타기획컨설팅, 2021)'를 접목해 세부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실행하였다. 2022년을 넘어, 2023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 1.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 재생

- **미션** 지역의 유휴공간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 예술인, 기획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간의 예술적 의미를 발견하고 실험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 **관련 사업** '연결공간 프로젝트'
- **키 비주얼**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을 매개로 공간의 확장성을 표현



"탈바꿈한 공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발굴하고 지속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 2.



"마을마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2.

### 문화 거점 기반 지역 문화 활성화

- **미션** 지역에 2개 이상의 민간 문화공간이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색에 기반한 지역 단위 문화예술 프로젝트 개발하기
- **관련 사업** 'G:가치 프로젝트'
- **키 비주얼**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하나의 축과 교집합 입체 도형으로 표현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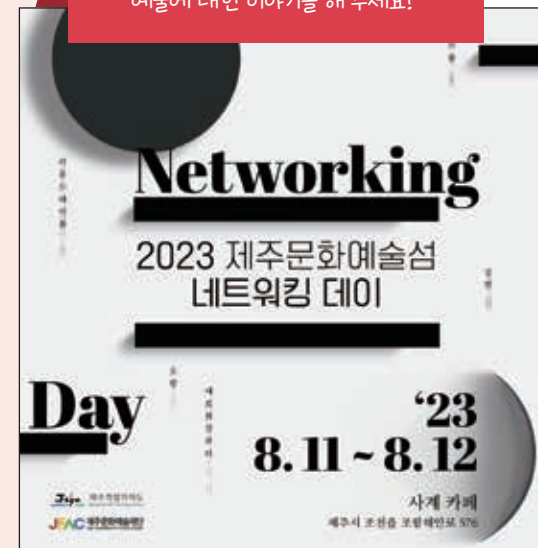
### 읍·면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서비스 확대:

- **미션**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도록 지역 밀착형 공연 프로그램 기획하기
- **관련 사업**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키 비주얼** 예술 특기자들이 군 복무를 대체하여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하기에 그 내용에서 착안하여 밀리터리 패턴 적용

"작은 마을의 지역주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와주세요!"



"제주에서 말하는 예술, 제주라서 더 말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 4.

### 문화예술섬 네트워킹 구축

- **미션** 도내·외 문화 기획자와 문화 매개자(지역 현장 활동가,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 정책 전문가, 문화 예술교육 활동가 등)가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문화 트렌드와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기
- **관련 사업** '2023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2023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1

연결+  
더하기

Jeju Culture & Art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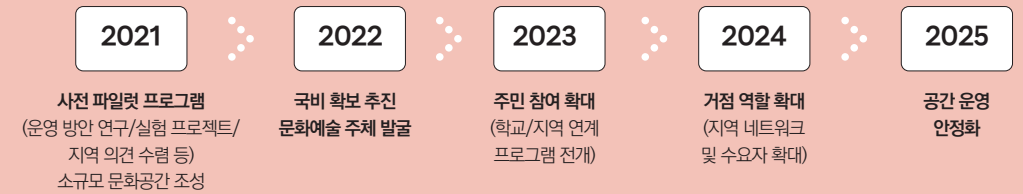
연결공간 프로젝트

## 제주의 유휴공간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다

“느슨한 문화공간을 매개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연결공간(連結空間) 프로젝트’(이하 연결공간)는 본래 역할을 잃은 유휴공간이 지닌 장소성과 가치는 수용하되,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생동하는 현재진행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공간재생 프로젝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유휴공간을 파악한 후 동부권 조천야학당과 서귀포권 중문119센터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해 2021년 첫 사업을 시작했다. ‘연결공간’은 특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드웨어의 변신보다는, 지역 주체들이 직접 공간의 쓸모를 고민하는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지속성과 자생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 ‘연결공간’이 만들어갈 큰 그림



##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일제강점기 '야학당'은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운동 공간인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및 성인의 유일한 교육터였다. 제주 조합해안로에 위치한 '조천야학당' 역시 제주도의 대표적인 야학당 중 하나다. 야학 운영 당시인 1390년에는 초가였으나, 197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해 조천성당 부속 건물로 활용되었고, 성당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다가 2009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현재 형태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았기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연결공간'은 조천리 마을의 문화 활동 주체인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를 주축으로 조천야학당을 '용천수 문화센터'로 변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2021년에는 동부권 추진단을 결성해 조천리새마을회, 조천리 용천수지킴이 등의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주민 역량을 강화해 자생성을 확보하고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했고, 2022년에는 재단, 지역주체, 전문가가 함께 운영을 논의하는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지역주체 문화적 역량 강화, 마을 브랜드 발굴,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열었다. 올해, 2023년에는 조천을 영화가 있는 마을로 만들어보려는 쪽으로, 마을 브랜드 구축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다잡았다. 다양한 인문학 수업을 통해 문화적 역량을 키운 조천리 주민들과 조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했다. '조천'의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집중시켰다. '물 문화'와 '영화'다. 물 문화와 관련해서는, 환경 보호에 더 앞장서기 위해 플로깅 이벤트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추가했다. 조천리 용천수를 아끼는 마음을 더 표현했다. '조천'하면 이제 '영화'를 떠올리길 바라며 올해를 보냈다. 영화가 있는 마을 조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 영화 제작 아카데미를 더 활성화시켰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고, 주민들이 만든 영화 시상식과 상영회를 마련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신만의 영화적 감수성을 담아낼 줄 알게 됐다. 영화가 있는 마을 조천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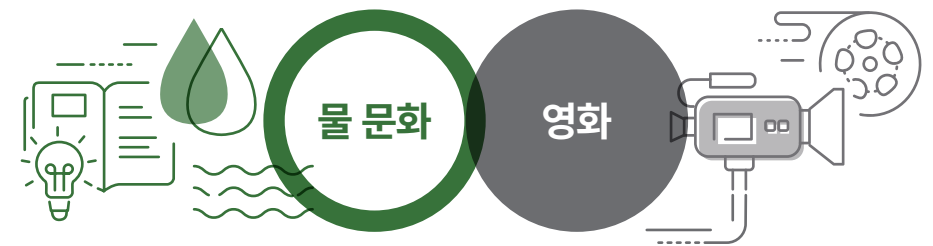
## 2023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의 주요 프로젝트 살펴보기

### ●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조천리에는 2019년부터 지역 문화 자산인 용천수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가 있다. 강연식 조천리장과 김수정 대표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보존 가치가 높은 마을 자원인 용천수를 탐방하고 알리는 활동을 통해 든든한 지역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연결공간'은 조천리 용천수지킴이가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를 더욱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용천수란?

빛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 제주 용천수는 마을을 이루는 중심점 역할을 했고, 솟아나는 용천수의 수량은 그 마을의 인구수를 결정하는 근간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조천 지역에는 현재 30개 이상의 용천수가 남아 있다.



### KEYWORD 1 물 문화

### ● 용천수 지킴이 활동가 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 주체 문화 활동가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교육과 마을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굿즈 제작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지역 주체의 문화 역량강화를 통해 용천수 브랜드화와 마을축제 운영을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주민역량강화 디지털교육

기간	회차	강사	강의 내용
7/17	1회차		커뮤니티 운영자되기
7/18	2회차	안전혜 SW미래채움 소속강사	구글폼만들기
7/19	3회차		PPT로 발표자료 만들기

### 마을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전문가 굿즈 제작 회의)

7/28	용천수 굿즈 상품 아이디어 회의
11/3	굿즈 상품화 샘플 제작

● **마을문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용천수 아트로드>**

지역작가, 예술가, 지역주체를 초청해 문화 인문학 강좌 및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센터를 활용한 지역문화, 마을이야기를 공유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조천마을을 배경으로 한 아외스케치 프로그램인 “용천수 아트로드”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조천리의 늦봄 이야기를 작은 캔버스에 물들이며 전했다.

기간	강사	강의 내용
6/14	한동휴 농학박사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삶의 지혜
6/21	이성훈 무형문화재위원회 공연예술 위원	제주해녀와 해녀노래
7/14-7/15	손세실리아 시인	제주 바당을 읽다
5/20	김택화 미술관 문화예술교육팀	용천수 아트로드 아동반 아외스케치
5/21		용천수 아트로드 성인반 아외스케치



● **제주 물문화 세미나-탐방 프로그램**

조천리 용천수와 마을문화를 홍보하고,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 마련했다.  
마을문화와 생태 자원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용천수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제주 물문화 관련  
세미나도 '용천수 지킴이'가 직접 운영했다.

**용천수 탐방 프로그램**

- 8/20            조천중 학부모 및 학생
- 9/13-9/15    조천초 학생 탐방
- 10/8           선흥초 가족단위
- 10/15          조천청년회 가족



**제주 물문화 세미나**

- 11/4-11/5     제주의 습지에는 어떤 새들이 살까(기수역 중심으로)





KEYWORD 2 영화, 영화가 있는 마을 조천

● 민병훈 감독과 함께하는 <조천마을 스마트폰 영화 아카데미>

영화에 관심이 있는 조천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화 촬영 기술 교육, 촬영 체험, 제작 실습을 진행하는 종합 영화 아카데미다. 제주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영화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민병훈 감독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아카데미를 맡아 주었다. 같은 기간에 시간대를 나누어 학생반과 성인반으로 진행했다. 학생은 10명, 성인은 16명이 수료했고, 최종으로 학생반은 3편, 성인반은 출품작 12편을 출품해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작년보다는 더위는 덜했다고 하지만, 조천의 영화인들은 별안간 더 땀 흘렸던 여름을 보냈다.



민병훈 영화감독 (한서대학교 교수)

러시아 국립영화대학을 졸업해 1998년 <벌이 날다>, 2001년 <괜찮아, 울지마>, 2006년 <포도나무를 베어라>로 토리노 국제영화제 대상, 코트부스 국제영화제 예술 공헌상,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비평가상,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 은상 등을 수상했다. 올해에는 영화 <약속>으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됐다. <약속>은 지난 몇 년간 제주에서 촬영한 휴먼 다큐멘터리이다. 그는 현재까지도 제주에 거주하며 제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조천마을 스마트폰 영화 아카데미 3기

7/2-8/20(총 32강) 16:00-18:00 성인반  
18:00-20:00 학생반

● 민병훈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회 「조천마을 영화로 함께」

영화 아카데미 참여 학생, 지역주민, 도민이 함께 제주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영화 '약속'을 감상하고 감독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훈 감독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영화 GV에 대해서도 쉽게 접근하는 기회가 되었고, 조천읍에 거주하는 어린이, 활동가, 어른들이 함께 영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KEYWORD×KEYWORD 물 문화×영화

●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

조천리용천수지킴이, 파트너스 운영진,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함께 준비한 축제다. '용천수와 환경'을 주제로 용천수 탐방, 문화 플라마켓, 용천수 아트로드 스케치 작품 전시, 영화 아카데미 수상작 상영회(GV), 민요, 조천리 동아리 공연,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공연이 하나되는 축제를 진행했다. 플로깅 이벤트를 통해 쓰레기를 최소화했고, 아름답고 소중한 '용천수'와 '물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주제를 예술 작품과 공연 등 문화를 통해 풀어나간 축제였다.

① 조천 용천수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입도거리굿'

조천읍 민속보존회가 축제의 시작을 열었다. 액운을 막고 무사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분선동산 사거리에서 출발해 마을을 돌며 '입도거리굿'을 했다.



② 전통혼례 재현식, 궁중정악 축하공연

조천리 주민 신혼부부와 함께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혼례복 체험 포토존을 운영하며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과도 함께 즐겼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피리, 장구 등으로 연주하는 정악 합주 공연을 진행했다. 전통 그 자체를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③ 고치가게 '용천수탐방'

마을문화인 '용천수'와 용천수 보전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환경과 기후위기'를 알리는 장으로 활용했다. 조천리 용천수의 포인트를 소개하며 용천수에 얽힌 마을의 역사를 걸으며 풀어나갔다. 용천수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리며,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다. 조천리 용천수 마을 브랜딩 기념품(용천수 뱃지) 나눔도 진행했다.

#### ④ 용천수 아트로드 전시

'물 문화' 키워드로 진행된 프로그램인 '용천수 아트로드' 수강생들의 조천읍 용천수 야외스케치 작품들을 전시했다. 어른, 아이의 스케치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을의 모습을 잘 담은 작품들이 한동안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의 벽화가 되었다.



#### ⑤ 민병훈 영화감독 영화 상영회(GV) & 영화아카데미 수상작 상영회

조천리 주민교류센터와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두 곳에서 진행했다. 교류센터에서는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인 다큐멘터리 영화<약속>을 함께 보고 감독과 함께 '해설이 있는 영화상영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류센터에서 민병훈 감독의 영화 해설을 진행했다면,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에서는 '영화 아카데미 3기 수상작 8편'을 연속해서 상영했다. 이날 조천은 시네마 천국이 됐다.



#### 영화아카데미 수상작

**학생반** 바다, 용천수, 편지  
**성인반** 노자떡, HOMELAND, 너의 시간, 명자, 장에 가는 길

#### ⑥ 가문잔치와 플라마켓&체험부스

조천리 축제위원회에서 국수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문잔치를 준비했다. 연북정 앞 공터에서는 지역 주민·학생·지역 예술가·후원단체가 문화 체험, 음식 나눔 등 체험부스와 플라마켓을 운영했다. 외로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던 연북정에 많은 사람들의 정이 가득 찬 듯했다.



#### ⑦ 문화 공연 '들을락'

조천태권도의 태권무, 조천 혼모심 하모니 단원의 트럼펫과 색소폰 연주, 예술요원 이준섭의 피리&생활 연주, 조천 청소년 문화의집 댄스동아리(프리덤, 레디키드)와 일렉기타 동아리 공연, 오프닝 제주의 고고장구, 조천 혼모심 색소폰앙상블의 색소폰앙상블, 조천 혼모심 합창단의 합창공연이 진행됐다. 공연 제목처럼 듣는 즐거움이 다양했다. 조천 포구를 노을과 함께 음악으로 물들인 시간이었다.



#### ⑧ ESG 환경X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고차:줍깅'

친환경 실천을 위한 주민형 ESG축제를 만들기 위해 제주바다 페플라스틱 '미니조명 만들기'와 제주 푸른컵 대화용컵 대어 홍보부스 운영, 플로깅 이벤트 '고차:줍깅'을 진행했다.

##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인터뷰

Mini Interview

조천리 용천수지킴이 김수정 대표



조천리 야학당 건물에 문화를 품게하고 재생시켜서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시도이자 기회였어요.

연결공간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의 향토문화 '용천수'를 주제로 마을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어요.

인문학 향유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용천수 문화 축제 등 지역성을 지닌 콘텐츠를 브랜드로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해주셨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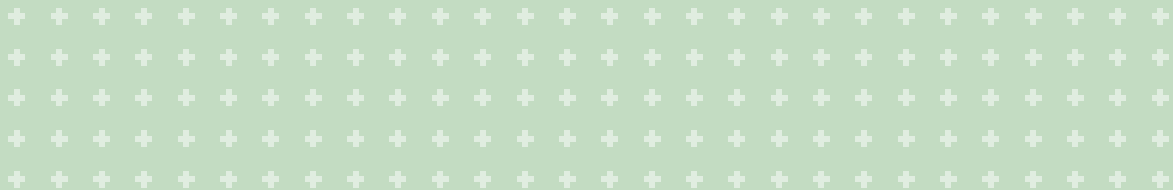
마을주민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유지해내는 데에는 많은 기획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더 활력있게 해낼 수 있는 실행력과 창의성을 발휘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년에도, 언제나 그랬 듯이 '조천 유희'의 무한한 꿈을 지속해 보려 합니다.

2023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2

가치+  
더하기

Jeju Culture & Art Island



## 같이, 가치롭게 제주만의 지역문화를 만들고 실험하다

문화공간이 함께 그들의 지역 자원을 연결한다면  
어떤 새로운 모양의 문화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을까?

‘그치:가치 프로젝트’는 민간 문화공간과 함께  
제주도 지역 문화의 미래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민간 문화공간 두 곳 이상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021년의 7개, 2022년 2개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에는 총 6팀의 컨소시엄이  
가치로운 제주의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켰다.

지난 5월 23일 그치:가치 프로젝트에 함께할 컨소시엄을 발표했고,  
5월 31일 선정팀 기획서 컨설팅으로 프로젝트의 틀을 잡았다.

9월 7일, 컨소시엄 간 네트워킹 워크숍을 진행하며

서로의 프로젝트와 여러 민간문화공간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를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12월 3일에는 제주아트플랫폼에서 「모두 그치 가치」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기획하고 실행해낸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한 해를 그치 마무리했다.

### 그치:가치 프로젝트, 어떤 의미일까?

- ① 그치:가치 → 함께(together):가치(value)/함께하는 지역 문화의 가치
- ② 그치 → 고치(함께)/다양한 주체를 창조적으로 연결
- ③ 가치 →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사람을 움직이는 힘

## 그치:가치 프로젝트

‘그치:가치 프로젝트’의 주역들

**사업 주관**  
제주문화예술재단

**그치가게 파트너**  
민간 문화공간 네트워킹

**프로젝트 기획 진행**  
민간 문화공간

**그치가게 파트너**  
전문가 컨설팅

선정 프로젝트 ①  
NEW안덕계곡&NEW저지 예술제

사)문화예술공간 문막×제주공감

#서부권읍면 #안덕 #자연물기반축제

(사)문화예술공간 문막

2017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폐광굴 선과장을 임차하고 업사이클링해 '문화예술공간문막'을 만든 곳이다.  
2020년 5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환했고, 같은 해 12월엔 문화예술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에 인증됐다.  
'문막'은 제주어로 '모두, 다, 몽땅'이라는 뜻이다.  
'문화예술공간문막'은 '모두 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을 지향한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지식과 재능을 나누며, 문화와 예술을 즐긴다'라는 가치 아래, 지역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공유하며, 서귀포 문화예술 소외 지역의 새로운 민간 문화예술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제주공감

2019년 문화중개소의 아카펠라 동호회로 활동을 시작해 목소리만으로 선율을 전하는 제주의 유일한 아마추어 아카펠라 단체다.  
문화예술 활동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열망으로 2023년 '제주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단체로 법인 등록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예술작품을 창조하고, 보다 많은 이들과의 음악예술 공연활동을 통해 가치에 대한 공감을 나누고,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제주공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사)문화예술공간 문막×제주공감의 <NEW안덕계곡&NEW저지 예술제> 프로젝트는 지역의 문화공간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마을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서 즐겁게 소통하고 연계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의 활성도를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제주 서부권 역에 다채로운 문화예술 생활문화플랫폼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서 시작해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했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안덕계곡'과 한경면 '저지리 문화예술인 마을'을 활용해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며 종합예술제 형태로 완성했다.



<NEW안덕계곡&NEW저지 예술제> 프로그램

① 뮤지컬 창단을 위한 음악교육 및 공연 연습  
문막의 퍼포먼스 그룹 '팬플룻', '오카리나', '우쿨렐레' 팀과 제주공감의 아카펠라 그룹 합창단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 극단을 창단하기 위해 음악교육과 공연 연습을 진행했다.

② 안덕계곡의 자생식물을 그리는 <보태니컬 아트 교육 및 전시>  
보태니컬아트 작가를 위촉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들의 작품은 총 세 번 이상 전시되었다. 안덕계곡 예술제 입구에서부터 공연장인 계곡 한복판으로 가는 길목에서 첫 전시를 열었고, '서귀포 시청갤러리'와 '공무원 연금공단 갤러리'에서 연이어 전시했다.

③ <비밀의 안덕계곡> 사진/영상 출사 실습  
안덕지역의 사진전 개최를 위해 지역 주민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영상 교육을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무대인 '안덕계곡'으로 출사를 나가, 계곡을 누비는 탐험대처럼 지낼 수 있던 시간이었다.



④ 감산 안골 반딧불이 체험과 작은 음악회  
제주에서 반딧불이를 만날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감산마을', 마을 안골 옥수농원에서 가을 반딧불이 해설과 탐방 체험을 진행했다. 팬플룻과 오카리나 연주, 튜연주, 하모니카 연주와 어우러지는 반딧불이의 불빛들이 노래하는 듯했다.

⑤ 제1회 안덕계곡 예술제 <물소리, 노래되어 깨어나다>  
울림이 뛰어난 안덕계곡을 활용한 천연 야외 공연무대에서 '제1회 안덕계곡 예술제'를 개최했다. 소프라노, 테너, 피아노, 아카펠라, 지휘, 무용, 해금, 합창, 팬플룻 등의 공연예술과 안덕계곡 비경 사진, 보태니컬아트 전시되는 시각예술을 한 데 모은 축제였다. 10월 14일 하루동안 1,000여 명의 관객이 안덕계곡에서 웅기종기 함께할 수 있었던 마을 축제를 만들었다.





© NEW 저지 작은 음악회  
저지리 '탐목헌in오조'에서 제주공감 아카펠라 그룹 '아카톤즈'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⑦ 문막 희곡낭독 공연  
희곡 공연을 위한 연습으로 '할매TV', '아빠는 새가 아니다'와 희곡낭독과 막간 마술 공연을 접목한 희곡낭독 공연을 올렸다. 안덕에 숨은 배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감정을 작게 표현해내는 것부터가 예술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꼈던 행사다.



## 선정 프로젝트 ② 살면 살이지쿠다

마음빛그리미×넙빌레 프로젝트×이음새

#동부권읍면 #남원을 #위미리 #마을어머ingu술사 #아카이빙프로젝트

### 마음빛그리미

자연이 아름다운 바다정원과 마음빛정원, 내일전망대를 가지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의 전시공간이다. 모두가 작가가 되는 전시 공간, 모두가 예술가가 되는 공연무대, 지역주민 및 여행자들을 위한 문화쉼터로 운영되고 있다.

### 넙빌레 프로젝트

2012년부터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어 오던 곳을 2020년 숙소공간을 제외한 마당의 야외상설무대와 사무실공간을 이용하여 치유예술공간 '넙빌레'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기획하여 진행했다. 그러다 2021년 무용, 미술전공자, 시인,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넙빌레프로젝트라는 전문예술가단체를 결성해 무용치유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고 워크샵, 전시, 연구,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이음새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에 소재한 천연염색 체험장이다. 2010년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천연염색지도사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 2013년 서귀포시 귀농귀촌 천연염색 교육운영장소로 선정되어 제주의 천연 염색 기법을 그대로 활용한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남원을 위미리 마을을 일구어 온 남성들과 같이 '여성'들도 험한 시대에 강인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왔음을 조명하려고 시작했다. 시대를 겪으며 살아온 우리네 마을 할망, 그들의 역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을 여성사의 중요한 사료를 채집해 가공하고, 마을 여성사 자료를 축적해 문화예술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이야기와 예술로 세대와 세대를, 남성과 여성을, 마을과 개인을 이어주고, 공감대와 소통을 나누기 위해 사진전과 무용공연, 생활사 전시를 진행해 위미 어머들의 삶을 예술로 승화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했다.



### 〈살면 살아지쿠다〉 프로그램

#### ① 원천자료 구술사 채록

근현대사를 겪은 어머들의 이야기를 녹음, 녹취하고 자료를 정리해 다시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가공했다.

#### ② 전자출판 '위미마을 어머들 이왕구술사'

가공된 구술사 채록을 사진이 들어간 전자책으로 출판했다.

#### ③ 마을 어머들의 삶 이야기가 있는 사진전

원천자료 구술사 채록과 함께 마을 어머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을 수집해 삶 이야기와 함께 사진전을 열었다.

#### ④ 마을어머들의 삶 다큐제작

원천자료 구술사 채록과 함께 인터뷰 현장을 촬영해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영상으로 유산을 남겼다.

#### ⑤ 무용공연 '춤으로 보는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

원천자료 구술사 채록을 기반으로 공연을 기획했다. 무용수들과 어머들의 공동작업을 통한 공연을 펼쳤다. 어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출판이 만들어졌다. 어머들의 감정선을 깨운 시간이었다. '춤'이란 방식으로 우리 마을을 기억하고자 했다.

#### ⑥ 마을어머들의 생활사 전시 및 의복제작 체험

원천자료를 수집하면서 위미 어머의 가계도를 조사하라는 조언을 얻었다. 이 조언과 함께, 위미 마을의 생활사를 기록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고, 생활사가 담긴 물건, 의복을 수집했다. 마을에서 만들어왔던 방식으로 어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복을 제작하고 전시를 진행했다.



#### ⑦ 마을어머들 역사전시관 〈살면 살아지쿠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게 된 정보와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창작물을 공유했다. 아카이브 '위미할망 이야기'에는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제외하고 총 다섯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담았다. '가계도를 중심으로 본 여성사', '세대를 더하면서 변화해 온 위미리 여성교육의 역사', '위미 노동의 역사', '제사와 종교', 마지막 주제는 '되미 삼촌의 이야기 보따리'다. 위미 할망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 할망들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든 살면 살아진다는 '살면 살아지쿠다'로 통했다.

사이트 참고: <http://jejumother.co.kr/>



## 선정 프로젝트 ③ 원도심에서 상상하다\_제주환상

비아아트 대동호텔 아트센터×한뼘책방

#제주시권 #원도심 #ESG #주거실험 #환상

#### 비아아트 대동호텔 아트센터

일도1동 셋물골에 위치한 대동호텔 1층에 2012년 문을 연 갤러리인 비아아트 대동호텔 아트센터. 예전에 비해 원도심의 다양한 문화가 해체되어 가는 현실이 안타까워, 시각예술을 선보이는 갤러리 공간을 조성했다. 쇼윈도, 1층과 지하 전시장에서는 기획전시 중심으로 다양한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 옆 별도의 공간에서 강의나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안에서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

#### 한뼘책방

주책가 골목 안에 위치한 작은 서점으로 주로 인문, 문학, 예술, 사회 도서를 취급하는 큐레이션 서점이다. 2018년 이래 지난 5년 동안, 글쓰기 및 작가 초청 북토크, 지역주민들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정기 북클럽 등 다수의 행사 및 모임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역 문화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다. 책방에 가면 큰 강아지(?) '조금'이 반기는 곳이다.



100년의 주거지였던 원도심에서 또 새로운 백년을 상상한 프로젝트! 제주의 오래된 집에서 제로웨이스트 이불을 덮고 자는 일, 생활 편의시설이나 용품 없이 지내는 일, 아침이 되면 제주의 간단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일, 하룻밤 쓰고 버리는 것들을 만들지 않는 주거실험을 해본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삶이 아닌, 살던 대로 살지 않는 시간을 살아보는 새로운 이상으로 갈아타는 〈환상(換想)〉 실험인 동시에 원도심의 사람과 일상 위에서 세워지는 제주〈환상(幻想)〉을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영감이 되어 예술가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원도심에서 다시 시작되는 미래를 환상적으로 제시하게 될 상상 그 이상의 세계를 그리고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주의 문화콘텐츠 중 원도심이 지닌 문화콘텐츠를 새롭게 해석했다.

〈원도심에서 상상하다\_제주환상〉 프로그램

① 원도심 답사

옛길 속에 담긴 주거와 삶의 풍경을 알아보는 원도심 투어를 진행했다. 뜨거운 여름, 원도심 골목을 걸으며 원도심을 속속들이 탐구했다. 〈제주 환상〉의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다.

② 참여 작가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집 이야기

문성운 작가의 집, 문효진 작가의 집, 이상홍 작가의 집에서 오래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덕중 건축가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③ 주거실험 '셋뿔골 마당집'

원도심 오래된 주택에서 익숙한 방식의 삶에서 내려 새로운 삶으로 갈아타는 실험 후, 주거실험 보고서를 작성했다.



④ 어반 스케치

원도심의 한 구역을 선정하여 도시 풍경 스케치를 진행했다.



⑤ Up-Cycling(업사이클링) 워크숍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방법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리블랭크의 채수경 대표와 함께 제로웨이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업사이클링 친환경 소재로 아자일 모빌을 만들었다. 외국인 모자가 원도심을 관광하다가 스리슬쩍 들어와 현장에서 신청했다. 원도심에서, 전세계가 고민해야 할 이 주제를 가지고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과 진행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⑦ 제로 웨이스트 워크숍

전국 제로웨이스트 활동가(제로웨이스트 숍 운영자) 10명을 초대하여 제주 원도심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⑨ 제주환상 창작

원도심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시각예술가, 소설가, 시인, 음악가, 건축가, 일반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표현방식으로 제주환상을 주제로 창작활동을 진행했다.

⑩ 피날레 'Play Jeju Fantasia'

프로젝트 기간 동안 창작된 콘텐츠와 작품을 비아아트에 전시하고 삼성혈 송보당에서 창작된 곡의 연주와 연주곡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연 진행했다. 10월 14일, 봄에는 벚꽃이 휘날려 사람들이 자리하는 곳에 제주 환상곡이 울렸다. 문효진 님이 작곡한 『제주환상곡』과 더불어 가을을 수놓기 좋은 곡들이 삼성혈 사이에 퍼졌다. 그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있었던 '주거 실험'에 참여했던 분들이 함께했다. 한뼘라디오를 함께 진행했던 한뼘책방의 조은영 대표와 장혜령 작가(시인)이 메인 엠씨로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눴다. 삼성혈에서의 연주는 처음이었다고 한다. Play Jeju Fantasia를 계기로 삼성혈이 문화예술행사로 많은 사람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⑥ 한뼘 라디오(팟캐스트)-with 장혜령 작가

프로젝트 참여 작가, 제로 웨이스트, 슬로우 라이프, 지속가능한 미래,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여 이를 라디오로 제작하여 발행했다.



⑧ 한뼘페이퍼 〈제주환상〉 발행

원도심의 오래된 이야기와 원도심의 미래 이야기를 담은 태블로이드판 신문형식의 한뼘페이퍼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발행했다. 한뼘페이퍼에는 주거실험자들의 긴 이야기가 실렸다. 살고 있는 곳과 살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 등 '주거'에 대한 깊은 이야기다. 그리고 이 『제주환상』은 "Play Jeju Fantasia" 토크 콘서트, 공연 현장에서 배포했다. 글로된 이야기를 읽으며 참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했다.





## 선정 프로젝트 ④ LOCOCO 프로젝트

새당라움×디어마이블루

#제주시권 #무근성 #마을아카이빙 #입체파노라마북



### 새당라움

2018년 제주 중앙로 99번지 3층에 문을 연 비영리전시공간 및 예술단체다. 정형화된 전시 공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도·내외 작가, 기획자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과 지속적인 커리어 형성 및 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 디어마이블루

2015년 서울 서교동에서 시작하여 2018년 제주로 이전한 동네 서점이다. 애월에서 시작했다가 무근성마을로 이전한 지도 어언 1년째다. 200종의 책만을 선별하여 100% 현매로 구입, 반품을 하지 않는 운영으로 출판 생태계의 선순환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안 서점이다. 제주 서점투어, 북콘서트, 저자 강연, 독립출판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여는 민간 문화공간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기록하고 체험하는 로컬 콘텐츠 수집 프로젝트

무근성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 스토리를 담아 입체 파노라마북을 제작해 기존 자료를 업그레이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보를 충실하게 반영한 아카이빙을 기획했다. 소장 가치와 정보, 재미를 모두 갖춘 유니크한 형태의 아카이빙을 꿈꿨다. 지역주민과 새롭게 유입된 주민들이 함께 만나는 장을 마련해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문화·상업 공간 운영자 간 네트워크 형성하고 제작된 파노라마북을 활용한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 〈LOCOCO 프로젝트〉 프로그램

LOCOCO!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로코코가 아니다. 지역의 콘텐츠를 모은다는 뜻이다. “Local Content Collect”라는 말에서 앞 두 글자씩 따와 제목을 지었다. 무근성 마을을 입체 파노라마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해, 제주의 어떤 또 다른 Local에서도 해 볼 수 있을 거라는 포부를 담기도 했다. 삼도2동(무근성) 마을에 있는 중요한 장소들을 하나의 지도에 담았다. 관광객도, 제주를 잘 모르는 제주 사람도 이 파노라마북이라면, 한 번쯤은 더 읽고 펼쳐보아 제주를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

#### ① 리서치와 사전 준비

기존 연구 및 도서, 간행물 등의 자료를 조사하고 입체 파노라마북 제작을 위한 일러스트 작가 및 관계자와 함께 파노라마북 제작을 위한 기준 설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 ② 지역주민 간담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원도심 내 공간 '카페 리듬'에서 지역주민 및 상인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운영했다.

#### ③ 입체 파노라마북 제작

삼도2동의 역사·문화 정보들을 흥미롭게 보여주는 입체 파노라마북 출간,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상업 공간과 주요 역사·문화 공간 등에 배치했다.

#### ③ 입체 파노라마북 출간기념회

입체 파노라마북의 제작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는 출간 기념 행사와 함께 원도심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역사여행 전문가 박광일님과 함께, 충청남도 공주의 사례를 보며 아카이빙을 위한 지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들었고, 7치가게 파트너인 공간문화센터 최정환 대표님과 함께 프로젝트의 전반적 내용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 ③ 입체 파노라마북과 함께하는 로컬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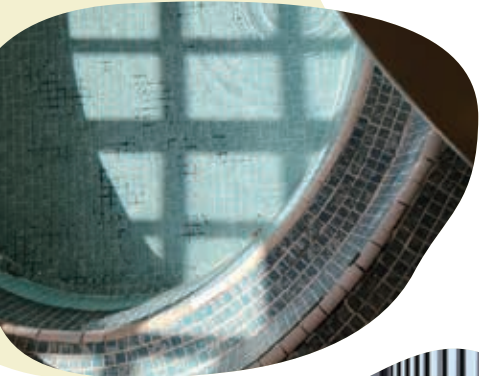
결과물인 입체 파노라마북을 활용해 원도심 투어에 나섰다. 보다 풍부하고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진행자로 섭외해 2회의 로컬 투어를 진행했다.



## 선정 프로젝트 ⑤ 물길 따라 마을 마실

라바르×백주산보

#서귀포시권 #물길로연결된공간 #마을아카이빙 #마을마실



### 라바르

과거 온천탕의 기억을 품고 있는 북향문화공간으로 50년의 이야기를 지닌 온천탕과 함께 지라난 온천탕 집 그 아기가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대적인 시설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각종 마다 욕조, 환풍구, 굴뚝, 물통을 남겨두어 건물 곳곳에서 온천탕의 흔적을 작품처럼 관람할 수 있다. 식음료 서비스와 문화, 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다.

### 백주산보

사진과 영화에 대한 커뮤니티가 없음을 아쉬움을 느낀 이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 현재는 서점, 공연장, 갤러리의 역할을 겸한다. '서점 공간' 그리고 '시네마틱 살롱' 두 가지 공간으로 분리되어, 한 곳에서는 책을 구매하고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으며, 반대편 공간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제와 전시가 열린다. 멋진 그랜드 피아노와 함께 가금 공연을 열기도 한다.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을 위해 가까운 거리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예술하는 이들의 실용 공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상의 공간인 '카페'에서 물로 이어진 두 개의 공간이 물길을 따라 마을의 문화를 찾아 나서는 프로젝트다.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을 통해 일상의 작은 변화를 주고, 걷는 마을 여행과 스케치,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는 '마을 마실 클래스'와 마을 문화 향유를 위해 교류하는 '마을 마실 살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불어넣고자 했다. 나아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한 관계 형성으로, 새로운 방식의 문화 생활을 제안하며 상생의 가치가 더욱 많은 이들에게 닿고자 했다.



## 〈물길 따라 마을 마실〉 프로그램

총 35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모든 프로그램에 최종적으로 511명의 이웃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외국인 예술가를 포함해 24명(팀)의 지역예술가 및 전문가가 함께 진행해주셨다. 우리 마을의 물길을 따라 함께 35.3km의 길을 걸었고, 100시간을 교류의 시간으로 함께한 한해였다.

### ① 마을 마실 캠퍼스 '건축학개론'

공공건축가를 통해 배우는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마을의 이야기로 마을 마실 드로잉 및 마을 마실 카메라의 진행 전 마을의 형성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들었다.

### ② 마을 마실 캠퍼스 '예술학개론'

화가, 사진작가 등 지역을 살아오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을을 기록하고 경험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작품과 함께 살펴보았다. 마을 해설사와 사전 미팅을 통해 마을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바라봄과 동시에 마을과 연결된 미디어를 선정하여 이를 매개로 주민들과 소통했다.

### ③ 마을 마실 드로잉

마을을 살아온 이들과 살아갈 이들이 함께 걸으며 물길의 흔적을 되새기고 이 순간의 이야기를 담아 여반 스케치 기법으로 드로잉 수업을 진행했다.

### ④ 마을 마실 카메라

마을을 살아온 이들과 살아갈 이들이 함께 걸으며 물길의 흔적을 되새기고 이 순간의 이야기를 담아 카메라에 마을을 담는 출사 수업을 진행했다.

### ⑤ 마을 마실 살롱

마을 마실 드로잉과 마을 마실 카메라를 통해 함께 마을을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였다. 나름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경험을 가진 이들이 와인과 커피 등 매개물을 가진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했다. 마을의 지난날 그리고 앞으로의 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으로 사소한 마을 반상회 '와인편'과 '차와 커피편'을 진행했다.

### ⑥ 마을 마실展

마을 마실을 통해 만들어진 스케치, 촬영 작품들과 영상 등 다양한 기록물들을 마을의 아카이빙 기록물과 함께 라바르와 백주산보에 나누어 전시했다.



## 선정 프로젝트 ⑥ 화북문화공단 프로젝트

이디홀×이룸갤러리

#제주시권 #화북공단 #식맛아닌화북문화공단

### 이디홀

2019년 제주도 도두동 청소년 문화센터 지하에 만들어진 민간 소극장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새로운 공연을 시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개관 후 매달 1회 이상의 기획공연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여러 장르의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잘 빠르게 라이브 스트리밍 비대면 공연 시스템을 구축해 공연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역 예술가 인터뷰 및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는 등 지역 예술가들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며 매년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지역민에게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룸갤러리

2021년 4월 개관전을 시작으로 매월 2회기량의 전시를 운영해왔으며 청년작가부터 원로작가까지 다양한 작가들로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활발한 국내 아트페어 참여를 통해 제주작가를 알리는데 힘써오며 국내 화랑, 아트페어 관계자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문화예술 활동 및 콘텐츠 운영한다. 작가와 미술애호가들의 교류와 미술체험 등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목적 카페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화북 공업단지에 문화예술의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기 위해 음악공연과 미술전시가 한데 어우러진 실험적 문화축제를 기획해왔다. 삭막한 공업단지에서 문화예술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다양한 기획들이 제주에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제주출신 청년작가의 다양한 예술 작품을 전시하여 참여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전시 작품에 대한 작가와 관람객 간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작가소개와 미술경매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했다. 아티스트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음악공연과 전시작가 경매&토크가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 공연을 진행했다.

## 〈화북문화공단 프로젝트〉 프로그램

### ① 화북문화공단 프로젝트 전시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고있는 제주 출신 청년 작가 (라군선, 박주우, 오지우)를 선정해 이들의 작품을 전시했다. 제주출신 청년 작가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예술가와 대중의 관심을 키워나가고자 했다.

### ② 사진 맵핑 '공단의 낮과 밤'

화북공단 내 생활권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반방문객은 알지 못하는 화북공업단지 낮과 밤의 모습을 자유롭게 촬영했다. 수집된 사진으로 맵핑 작업 후 전시했다. 화북문화공단의 시발점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생성했다.

### ③ 공단놀장 아트마켓 공연

음악과 예술의 조화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제주에서 활동하는 음악 창작그룹의 공연을 기획해 참여자들에게 폭넓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했다. 음악공연과 전시 작가 스몰토크가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의 공연을 진행했다.



## 2023 7차:가치 프로젝트 중간 네트워킹 워크숍 「가치 나눔:다 가치(같이)」

- 일정 : 2023. 9. 7.(목)
- 장소 : 제주아트플랫폼 워크숍룸

7차:가치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공간 대표님들과 기획자, 재단 운영주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어떠한 콘텐츠로 함께 7차:가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올해(2023년)에는 특히 마을 아카이브에 관련한 프로젝트가 많았다. 마을 아카이빙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그 마을을 어떻게 아카이빙하고 기억해내고 싶은지가 프로젝트별로 달랐다. 같은 주제와 비슷한 고민들을 어떻게 다르게 풀어나가고 싶은지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지역문화확산팀 팀장, 프로젝트 운영담당자가 함께하며 재단과 지역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기획 프로젝트에 대해 보완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이런 지역민 주체의 바텀업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제주의 작은 마을들에 대한 브랜딩 방법과 이러한 마을, 거점 기반 프로젝트의 지속성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 2023 7차:가치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모두 7차 가치」

- 일정 : 2023. 12. 3.(일)
- 장소 : 제주아트플랫폼 워크숍룸

지역거점 기반 문화활성화사업인 7차:가치 프로젝트는 올해 4월 제주 전역 민간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참여 컨소시엄을 공개 모집했다. 그 후 5월이 되어야 최종 프로젝트 참여 팀이 결정났다. 이후 컨소시엄들은 늦은 6월부터 부랴 부랴 기획한 내용, 마음속으로 그려본 그림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마을 아카이브와 관련한 컨소시엄이 많아, 제주시 북쪽 바다와 접한 마을에서도, 서귀포시 남쪽 바다와 접한 마을에서도 어반 드로잉, 마을 탐방 프로젝트가 바빠 진행됐다. 그것도 한여름에!! 올해 여름이 그래도 작년보다 덥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덕분에 활동하는 게 아주 덥고 고된 일이었다고 한다.

6개의 컨소시엄, 12개의 공간의 대표님들이 참석한 최종 성과공유회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평가였다.

모든 프로젝트가 끝난 12월, 6개의 컨소시엄들이 다시 모여 2023년 프로젝트를 정리했다.

성과공유회는 「모두 7차 가치」란 이름으로, 2023 JFAC 성과공유주간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며 진행됐다.



## 2023 7치:가치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모두 7치 가치」

「모두 7치 가치」에는 6개 컨소시엄 관계자 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중간 네트워킹 워크숍에서 예고했던 각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 시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나갔는지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로 꾸러졌다.

10월 14일에, 각각 제주시 삼성혈과 서귀포시 안덕계곡에서 큰 공연을 진행했던 두 컨소시엄은 서로 아쉬운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서로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면서도 달리 풀어간 점을 나누고, 서로 칭찬도 하면서 사례 발표시간은 마무리 됐다.

사례발표가 끝난 후에는, 도에서 지역기반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 왔던 “커커필드” 최영순 대표님의 강의를 진행했다. 대표님은 이 자리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의 생각과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에 반기워하셨다. 인도의 정책, 지역 상황, 마을 주민의 태도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을 다루며, 우리 제주 마을에서는 어떠한 자원을 기반으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자연스레 고민들이 가지를 치는 시간이었지만, 7치:가치 프로젝트 컨소시엄의 대표와 기획자 분들의 눈에는 걱정 고민보다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이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은, 공모 초기 때부터 상시 모니터링까지 꼭 함께했던 7치가게 파트너(전문 컨설턴트) 최정한 선생님의 총평과 함께 더 큰 가능성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 2023 7치찾게 파트너(전문 컨설턴트) 프로젝트 총평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 1. New안덕계곡&New저지 예술제

올해 프로젝트를 통해 안덕계곡의 장소적 가치와 상징성을 활용한 브랜딩 및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활동 성과를 축적해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듯합니다.

### 2. 살면 살이지쿠다

마을 어머들의 삶을 아카이브하고, 그 아카이브 과정에서 예술과 접목하려는 기획의도는 일정한 성과를 낸 듯 보이네요. 향후에는 아카이브 자체에서 더 나아가 그것의 사회화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원도심에서 상상하다 제주환상

주거실험과 제로웨이스트 기반의 라이프스타일을 접목해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을 제시했어요. 대동호텔 룸을 모델링함으로써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원도심의 일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사회화 과정과 공간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더 좋을 듯해요.

### 4. LOCOCO 프로젝트

무근성마을의 장소성과 삶을 기반으로 맵핑하려는 시도와 파노라마북의 형태는 향후 제주의 도시여행과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반해 무근성 마을에 대한 지속적 아카이브와 그 장소적 가치의 맵핑은 또 새로운 과제로 남았어요. 로코코 프로젝트 팀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꾸려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 5. 물길 따라 마을 마실

물길을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고 콘텐츠와 이야기를 발굴하여 브랜딩하려는 시도는 참신했어요. 그렇지만, 내용들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 프로젝트를 더 발전시킨다면, 현재 파편화된 것들을 아카이브를 통해 다시 정리하고 이를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어요.

### 6. 화북문화공단 프로젝트

젊은 아티스트 및 기획자들이 화북공단의 장소적 분위기와 느낌을 예술, 서브컬처 등과 결합해 장소적 가치를 재창조하려는 시도였어요. 장소, 활동 등과 관련한 지속성, 확장성을 더욱 분명하게 구축해 나간다면, 화북문화공단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이 프로젝트가 벌써 3년차에 이르렀어요.

7치가치가 벌써 3년차에 이르렀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의 접근방식 및 내용, 성과가 1년차, 2년차에 비해 풍부해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의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앵커사업으로서의 가능성과 공간 기반의 네트워킹과 씬(scene)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아가 활동 성과와 가능성이 큰 사업에 한해 3년 한도의 계속사업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김병수**  
前 제주시문화도시  
센터 센터장

**1. New안덕계곡&New저지 예술제**

계곡의 가치를 발견한 힘이 있는 기획입니다. 예술제에 참여한 관객과 공연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공연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억에 남네요. 기획서 컨설팅, 중간 모니터링 과정, 최종 축제 현장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제안드렸던 점은 “예술제 준비 과정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공연예술을 응원하는 관객을 수동화 대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면 더 풍성한 축제가 될 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살면 살이지쿠다**

마을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한 인터뷰 및 행사, 교육, 기록물 전시 등으로 진행되었어요. 활동 성과부분에서 보면, 기록 및 조사 부분에서 더 전문성을 고려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 기록 워크숍 등을 통해 더 많은 마을 참여자가 주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표현과 소통 영역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원도심에서 상상하다 제주환상**

제주 원도심의 주거생활 및 문화적 활동을 응집한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활동 공간의 전시, 대표적 역사공간의 공연 등 원도심 공간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예요. 예술가 혹은 예술적 소통을 넘어선 대중적 교감 및 문화참여, 소비 등으로 확장한다면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합니다.

**4. LOCOCO 프로젝트**

원도심의 무근성 문화 자원을 ‘아트북’으로 콘텐츠화하고 지역 간 네트워킹을 조직한 게 좋았어요. 표현방안과 네트워킹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무근성 내 문화 친화형 상업 공간에 지역 정체성을 입힐 수 있는 협업 구조, 핵심 과제를 마련한다면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5. 물길 따라 마을 마실**

마을 헤리티지에 기반한 도심 공간 활용 및 관광 콘텐츠 발굴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요. 물길따라 마을마실에 등장하는 ‘물길’에 대한 주제성과는 약간 다르다고 느껴졌으나, 보다 옛도심 공간의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로컬의 특징과 가치 소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마을 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록정리가 보완된다면 더 탄탄해질 듯 해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서 정례화 및 데이터화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화북문화공단 프로젝트**

‘화북’이라는 장소의 특성에 기반한 문제 정의, 문화를 통한 대안적 활동 제시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사전 협의, 공연 및 전시 기획, 홍보, 소비 공간의 활용, 공단의 장소적 가치 발굴 등 수행과정이 잘 짜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장소적 특징과 가치를 파악하고 다양한 기획을 통해 예술과 이해 당사자간 소통을 원활히 한다면, 화북이 정말 문화공간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이 프로젝트가 벌써 3년차에 이르렀어요.**

7치 가치 프로젝트는 특정 장르에 귀속되지 않고 문화다양성과 질적 성과가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참여자의 창의적 활동을 고스란히 성과화하죠. 다년간 지원을 통해 지원 기관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참여자들의 현장성을 강화해 매너리즘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① 과정 설계에 맞는 지원 방식의 다양화 ② 질적 성취가 이뤄지도록 현장 컨설팅 강화 ③ 다양한 네트워킹 경험의 축적 등이 개선된다면 더욱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 참여 공간이 직접 전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1.

New안덕계곡&  
New저지프로젝트

사)문화예술공간문뜩  
김민수 대표님

###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예술 소외지역인 제주 서남부지역의 민간 문화예술공간 거점화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기획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제1회 안덕계곡예술제>로, 계곡음악제와 안덕계곡 비경을 담은 사진전, 안덕계곡 자생식물 그림 전시회입니다.

안덕계곡의 자연 그 자체를 그려낼 수 있다는 점이 확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특히 울림이 좋은 안덕계곡 내에서 자연과 풍광, 물소리와 음악이 함께한다는 것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관객과 예술인은 객석과 무대가 없는 천연 바위에서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특별한 음악제를 즐기고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포부로 시작했어요.

###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감산마을의 소중한 문화자원인 <안덕계곡>을 천연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가장 뜻깊고 보람된 기획이었습니다. 지역의 천연계곡을 독창적으로 기획하여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능나눔을 한 결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행사일인 10월 14일은 날씨마저 도와주어 따스한 가을날 오후 안덕계곡 안에서 50여명의 공연, 시각 예술인과 관람객 약 500명이 함께 한 계곡의 노랫소리와 박수 소리는 계곡 안의 물소리와 함께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 내년에 해보고 싶은 나의 시도는?

내년에는 <안덕계곡예술제>를 2회를 개최하여 제주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축제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만들고, 1회의 경험을 통해서 보완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여 안덕계곡을 제주의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독창적인 문화예술계곡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매년 가치+치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개발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가 단발성으로 진행되고 소모되는 게 안타깝워요. 지역의 문화공간은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주 문화예술성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참여하게 되어 <제주문화예술섬>의 제주 서남부지역에 한 점을 만들게 해주신 제주도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문화예술공간문뜩



## 참여 공간이 직접 전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2.

### 원도심에서 상상하다 -제주 환상

한뼘책방  
조은영 대표님

### 비아아트대동호텔 아트센터

박은희 대표님  
박진희 기획자

####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컨소시엄을 이루는 두 공간 비아아트와 한뼘책방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어요. 단순히 프로그램이 이뤄지는 장소로써 각자의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공간적 성격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 '제주환상' 팀은 '주거 공간으로서의 원도심, 삶의 태도로서의 제로웨이스트'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는데요! 이는 매우 진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일상과 예술이 경계 없이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원도심은 그동안 많은 사업에서 호명된 공간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부흥이 시도되는 공간이에요. 저희 팀은, 지난 백 년의 역사 속에서 원도심이 제주도민의 주요한 주거공간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서 계승된다는 점에 기반해, 기후위기의 시대, 가속화되는 도시화의 시대에 원도심의 주거에 필요한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자 했어요. 참여자들이 이런 문제의식에 매우 열정적으로 호응해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② 제주는 대표적인 여행지입니다. 제로웨이스트와 같은 실험적인 미래 기획의 아주 좋은 테스트 베드라는 점을 이용해, 원도심에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여행 모델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제주 여행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③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진행된 프로그램<Play Jeju Fantasia>에서 보여준 다양한 분야(시각, 건축, 음악)의 작가들 작품들이 완성도 있게 표현된 점이 기억에 남아요. 제주문화예술이 어떻게 융합되어 대중들과 함께 공감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 올해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 보고 싶으신가요?

① 2023 '제주환상'을 통해서 '주거'를 프로젝트 주제로 삼았으며, 2021 '제주예찬'을 통해서 제주의 '식문화'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펼쳐 보였어요. 다음 사업에서는 '의(衣)'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문화예술 관점으로 제주의 '의식주' 문화를 들여다보며 '제주인의 삶=공동체'의 귀중한 가치를 새롭게 재현하고자 합니다.

② 2023 '제주환상'에서 시도한 '주거실험'의 확장판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원도심 레지던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주거실험에 참여하여 이를 콘셉트로 작품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원도심이 미래에도 유효한 예술과 일상의 근거지임을 확인하고자 해요.또, 주거와 제로웨이스트를 연계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도 확장하고 싶네요.

한뼘책방X비아아트대동호텔아트센터

## 참여 공간이 직접 전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3.

### 로코코 프로젝트

새탕리움  
강나경 대표님

디어마이블루  
권희진 대표님

####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원도심 활성화’라는 화두는 계속 있어왔고, 또 이미 많은 사람의 고민을 통해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 만한 새로운 형식의 결과물을 잘 구현해내고 다시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실제 이곳에서 공간을 운영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주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형태의 입체 파노라마북을 만드는 전 과정을 제주의 인력과 자원으로 해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제주에서 이런 제작 노하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달성한 것 외에 또 다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한정판이다 보니 원도심 투어 참여자들에게만 배포하였는데, 이 책을 얻기 위해 원도심 투어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 올해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 보고 싶으신가요?

처음부터 이런 형태의 책을 시리즈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만큼 제주의 다른 동네를 소개하는 입체 파노라마북을 연속적으로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외로는 이번에 나온 입체 파노라마북의 외국어 버전(영어, 중국어, 일어 등)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제주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알리고 유입률을 높이는 데 이 책처럼 색다른 콘텐츠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새탕리움X디어마이블루

4.

### 화북문화공간프로젝트

이룸갤러리  
배봉근 대표님

이디홀  
김신익 대표님

####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도심이 확장되면서 화북공업단지가 주거밀집지역 사이에 위치하게 된 상황에 주목했어요. 공업단지라는 특수성에 주민 친화적 활동들을 녹이고 싶었습니다. 공연과 전시, 미술품 경매체험과 사진전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소통기반을 다지는 데에 중점을 뒀어요!

####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2~30대 젊은 기획자,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힘을 합쳐 프로젝트를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화북공업단지 부근 거주민과 방문객들, 주변 예술인들과 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고 화북문화공간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올해 활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 보고 싶으신가요?

도민들이 화북공업단지의 변화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외형적 요소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꼈어요. 다만, 공업단지 내 건물과 도로 등의 규모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중장기적 관점의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먼저 화북공단에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선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을 토대로 공단 인접 주거지역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지역 내에 ‘예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단지의 변화를 유도하면 관찮겠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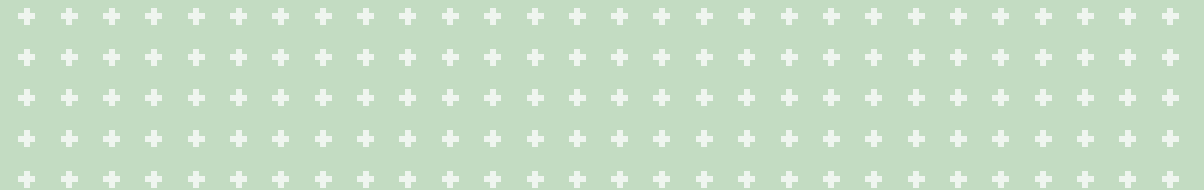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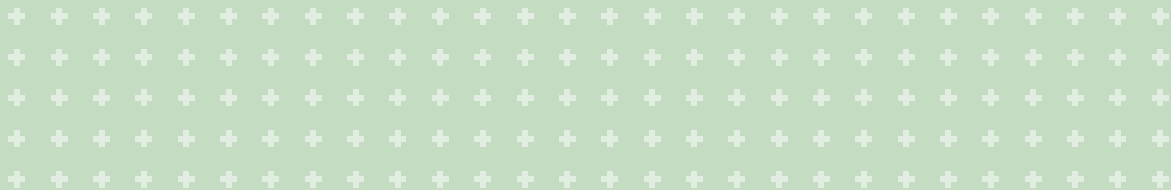
이룸갤러리X이디홀

2023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3

예술+  
더하기

Jeju Culture & Art Island



# 미션 Possible! 제주에서 예술하며 함께 성장하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요원은 학교나 복지시설에서 개인이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단에서는 도내 예술가, 문화 기획자와 협업해 교육 또는 공연을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2023년에도 역시나 국악(거문고, 대금, 정가, 판소리, 피리 등) 분야의 예술요원이 도내 읍·면·동에서 도내 예술인 및 기획자와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을 올렸다.

##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 예술요원 미션!

### MISSION 1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로 읍·면 등 소외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라!

### MISSION 2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단위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라!

### MISSION 3

도내 기획자와 예술가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성장을 지원하라!

### MISSION 4

제주 지역의 장소성과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시도하라!

### 예술요원이란?

예술요원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대신 특기를 활용해 봉사 활동을 하는 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 제주문화예술섬 × 예술요원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참여 아티스트

### 예술 요원



김민서 거문고

-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 제37회 동아국악콩쿠르 거문고 부문 금상
- 제36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장원



김시현 피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및 동대학원 재학
- 제40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금상
- 제37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피리부문 금상



남상동 판소리

- 중앙대학교 연희예술학부 졸업
- 제42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금상
-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차상



박새한 피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피리전공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석 수료
- 제42회 온나라 국악경연 대회대상 대통령상
-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금상



변영석 무용

- 제51회 동아무용콩쿠르 일반부 동상
- 단국대학교 무용과 졸업
- 제60회 전국신인무용경연 대회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 한영숙 상 수상
- 제60회 전국신인무용경연 대회 한국전통무용 남자부분 금상 수상



**이준섭 피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졸업
- 제39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피리부문 동상
-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 장원
- 제43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고등부 대상



**이헌준 대금**

- 국립국악 중 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



**정진성 판소리**

-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 제48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 (전주시장상)



**조남훈 정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 예술원 재학
- 제38회 동아국악콩쿠르 정가 부문 금상
- 전국정가경창대회 대상 (2022)



**이어진(김지연, 양여진) 퓨전국악듀오 피아노, 가야금, 보컬**

- 제6회 가야금 앙상블 반올림 정기연주회 포함 다수 연주 | 양여진
- 제8회 천안시 음악경연대회 국악 현악 부분 은상 | 양여진
- 2018 재즈스탠다드 듀오 '여울' 활동 | 김지연
- 2023 제주 청춘마이크 선정 예술인



**무드트리(동주, 우영) 인디**

- 2021~2023 제주 청춘마이크 선정 예술인
- 2021 청춘마이크 제주 최우수팀 선정
- 202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 10주년 행사 축하공연
- 2022 제주문화예술재단 JMF119 참여 예술인



**문효진 작곡-피아노**

-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하얼빈 국제예술제 한국 대표(2018)
- 제1회 제주창작음악회 [이어도사나] 기획
- 중국 취안저우 주최 '해상 실�크로드 예술축제' 참여
- '셰익스피어 인 클래식' 총기획



**박수현 베이스**

- 2016 사운드피쉬 정규 1집 'Electric Rouge'
- 2021 정규 2집 '아자수의 밤'
- 2020 한국음향예술인협회 주최. Pop 장르 아티스트 선정
- 2022 JIBS 탐나는 문화생활 '베이스리스트 박수현'편 출연



**성지선 피아노**

- 서울재즈 아카데미 정규,프로 과정
- 지선트리오 정규앨범 'Beyond Boundaries'
- 시크릿 포레스트 정규앨범 'Con Amore' 발매

도내 예술가



송예술 해금

-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 국기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
- 서울문화재 제44호 삼현육각 전수자
- 국회의장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등 전국국악경연대회 다수 입상
- 전북도립국악원, 광주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 등 다수 협연



여유와 설빈(황동규, 박설빈) 인디

- NAVER 문화재단 온스테이지 출연
- 2021 채플린 뮤직 페스티벌 출연
- 2021 아트락데이 바다를 '달·담'다 출연
- 2023 국립국악원 국악아티스트랩 선정



이은경 PM, 마림바 클래식·타악기

- 2023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PM(프로젝트 매니저)
- 2021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_기획프로젝트 <스밈> 선정 예술인
- 2022~2023 선홍초등학교 타악기 앙상블 강의 출강 (전학년 대상)
- 2022 불가리아 브랏차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마림바 협연(Bpaua Hall)
- 2021~2023 4·3 전야제 "다시, 부르는 바람" 뮤지컬 '사월' 연주



조은별 판소리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굿사운드 뮤직스튜디오 대표
- 2023 대한민국예술축전 국악 부문 제주 대표 "밴드 이강" 소속

프로젝트 진행 방식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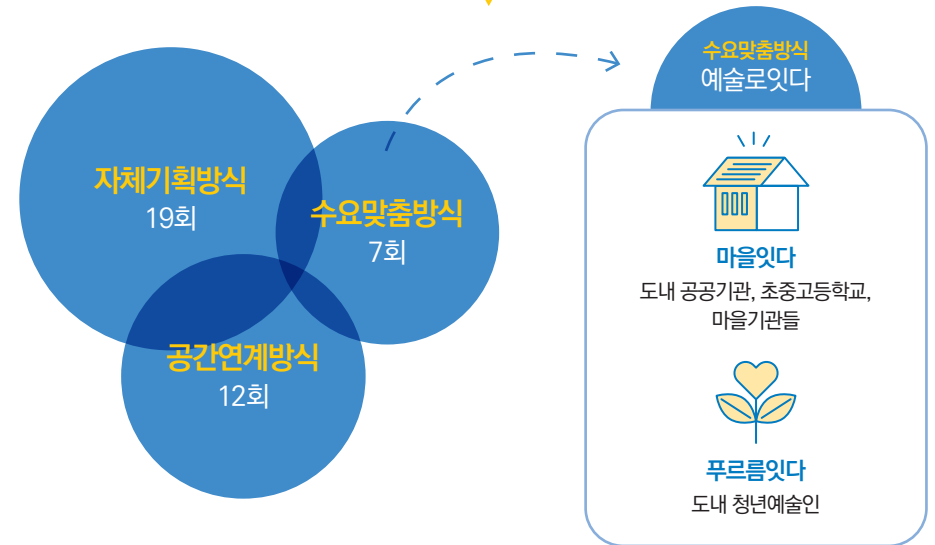
올해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는 전년도에 구축해 둔 3가지 방식 (자체기획방식, 공간연계방식, 수요맞춤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갔다.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 방식에서다.

자체기획 방식은 재단 담당자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자체 기획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정기 교육프로그램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기적인 기악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면 더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다. 결국 국악기(피리, 대금)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파일럿 형태로 진행했다. (\* 반해서 유월 프로젝트)

수요맞춤 방식 공연은 그 수요자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운영 범위에서 더 확장했다. 원래는 마을의 거점 기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서, "도내 청년 예술인과의 협업과 네트워킹"을 추가적인 기대효과로 보고 그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

수요맞춤 방식 단일 프로그램으로 있던 "마을 잇다"를 [예술로 잇다] 안에 <마을 잇다>, <푸르름 잇다>를 두는 것으로 재정비했다. <푸르름 잇다>는 범위를 확장한 프로그램으로, 도내 청년 예술인이 직접 신청해 예술요원과의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창출해내는 방식이다. 그 결과는 확실히 달랐다.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끈 것과 동시에, 마을 기관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났다. 전년도보다 그 수요 자체에서 5배 이상 느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두 방식에서의 큰 변화와 함께 2023년을 예술요원과 함께했다.





**공연·교육 반해서 유월** 16회

- ① 열두 달을 반해 유월(上) 6. 4.(일)
- ② 바다에 반해, 오름에 반해 6. 11.(일)
- ③ 걱정을 반해 6. 18.(일)
- ④ 열두 달을 반해 유월(下) 6. 25.(일)
- ⑤~⑧ 대금에 반해(교육) 6. 3. ~ 6. 24. 매주 (토)
- ⑨~⑫ 대금에 반해, 피리에 반해 교육 연계 공연 매주 (토)
- ⑬~⑯ 피리에 반해(교육) 6. 3. ~ 6. 24. 매주 (토)

2023년 6월 한 달간 주말마다 대금, 피리 악기 교육과 공연을 진행했다.

**공연**

6월을 맞이해, 한 해를 반하면 유월이 된다는 내용을 큰 콘셉트로 잡고, 매료 된다는 의미의 '반하다'와 절반으로 나눈다는 '반(半)하다'를 작은 주제로 삼아 진행했다. 공연은 매주 일요일, 반하나다의 중의적 의미에 따라 다른 색깔로 진행했다. 바다와 오름에 반한다는 주제로 제주의 색깔을 보여주기도 했고, 누군가의 걱정을 반할 수 있는 힐링음악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 (반해서 유월)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최대 인원의 예술요원이 참여한 사례가 됐다. 총 7명의 예술요원이 국악 내에서도 다양한 악기를 선보이면서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번에는 '정가' 분야의 조남훈 요원이 새로이 함께하며 정가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교육 대금에 반해, 피리에 반해**

익숙하게 배울 수 있는 악기에서 벗어나, 국악기(대금, 피리)를 정기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사전 신청자를 받았고, 4주 동안 국내에서는 그 분야의 최고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술요원에게 직접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해 노래까지 함께 연주해내는 도민들의 하모니가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다.

**공연 여름의 어떤 것** 2회

**여름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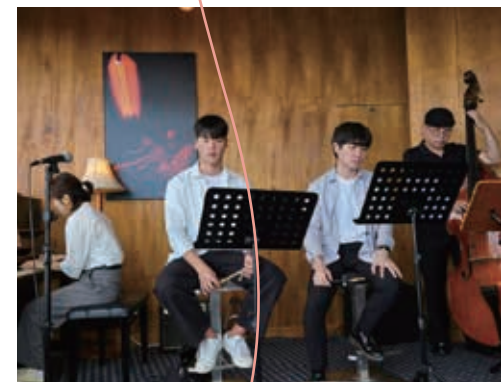
7월 21일, 선홍의 숲속에 있는 심심책방에 예술요원이 모였다. 판소리 정진성, 피리+생황 이준섭 요원이 키보드를 연주하는 이은경 PM과 낭독회 연계 공연을 선물했다. 참여자는 음악과 시, 글귀들로 여름을 기억하고자, 모인 자리에서 마음속에 있는 글귀와 사연을 나눴다. 주제는 '나의 최애(愛)', '여름'이었다. 예술요원도 다른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글귀를 좋아하는 이유를 말하기도, 그 글귀에 얽힌 사연을 말하기도 하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어울리는 음악을 연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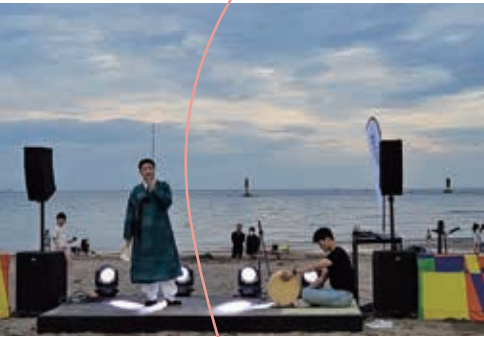
**한여름의 숲**

7월 30일, 관광객, 도민 할 것 없이 더위를 피하던 사려니 숲, 피리와 마림바의 울림이 사람들을 끌었다. 이은경 PM이 마림바를, 김시현 예술요원이 피리를 선보이며 사려니 숲을 더 시원하게 했다. 김시현 요원은 전통곡인 상경산품이에서부터, 숲과 여름을 말하는 창작곡(대중가요 포함)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창작곡을 연주할 때는, 마림바와의 새로운 어울림을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 전통과 자연의 여유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팬이 되었다며 그 자리에서 사진을 요청하는 관객이 유독 많았던 공연이었다.

**공연 JAZZ모리장단** 1회

9월 22일, 여름과 가을이 아직 공존하는 계절.. 가을의 선치함을 조금이나마 이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재즈 공연을 마련했다. 언뜻 들으면 본투비 재즈 악기 아닌가 싶은 국악기 피리와 양악기 베이스, 키보드 선율이 애월고내리의 재즈 카페에 퍼졌다. 예술요원의 '피리즈'인 김시현, 이준섭 요원이 재즈 악기에 둘러싸여 피리를 연주하며 국악 재즈 퓨전 공연을 선보였다. 재즈의 정석인 Autumn leaves부터 익숙한 디즈니 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국악x재즈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곡으로 재탄생시켰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재즈 아티스트인 키보드 성지선 님, 베이스 박수현 님이 피리 소리를 재즈로 감쌌다.





**공연** 필터페스티벌 야간 버스킹 2회

연계 공간 : 이호테우 해수욕장

- ① 필터페스티벌 야간 버스킹(1) 7. 22.(토)
- ② 필터페스티벌 야간 버스킹(2) 7. 29.(토)

2021년~2022년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단한번도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공연은 없었다. 이 해변 야간 버스킹은 해수욕장 공연의 첫 시도라는 의미가 있는 공연이다. 이호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필터페스티벌'의 해변 버스킹에 예술요원이 초청되었다. 나무로 된 악기가 많아 습기가 많은 곳에서의 야외 공연을 시도하는 것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를 배려해 목소리가 곧 악기인 판소리요원들이 주로 함께하게 됐다. 예술요원 남상동, 정진성 요원이 늦저녁의 해변을 찾은 관객에게 추임새를 가르치며 소리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었다. 도내 예술인 무드트리와 콜라보 공연으로 대중가요×판소리 크로스오버 공연을 펼쳤다. 전통적인 발성과 대중가요 발성이 멋들어서 어우러졌다. 습기에 위험한 국악기를 연주하는 요원 중에도 해변 공연에 도전해주신 분이 있었다. 이준섭 피리 예술요원은 여름의 해변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바다를 피리의 선율로 부드럽게 다독였다.

**공연** 해질녘 야간버스킹 1회

연계 공간 : 교래자연휴양림  
일자 : 8. 26.(토)

8월 26일, 국악기가 생소한 중산간 교래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악 버스킹을 진행했다. 주요 생활권이 중산간인 만큼 문화생활을 많이 누리기 힘든 주민들에게 선물 같은 연주였다. 중산간 주민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주민들도 접하기 쉽지 않은 '생황'이란 악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200여 명의 관객과 가까이 눈을 맞추며 호흡한 공연이었다. 예술요원 이준섭 님이 참여했다.

**공연**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데이 오픈워크숍 1회

연계 공간 : 함덕 사계카페  
일자 : 8. 12.(토)

8월 12일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의 오픈 워크숍으로 제주 청년 예술인과 예술요원의 콜라보 공연이 성사됐다. 이준섭 예술요원은 생황, 피리 연주를 모두 선보이며 도내 예술인과 어우러졌다. 여유와 설빈이 잔잔한 음악으로 무대를 열었고, 이어 국악기 콜라보 공연이 진행됐다. 가야금×키보드 듀오로 활동하는 '이어진(양여진, 김지연)' 팀과 소리꾼 조은별 님이 함께 무대를 꾸몄다. 인디 음악인, 도내·외 국악 예술인이 무대를 함께 하며 제주 청년 예술계, 예술계와 환경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도 나눴다. 제주 청년 예술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던 의미 있는 토크 형식의 공연이었다.

**공연** 樂바리 나도 음악가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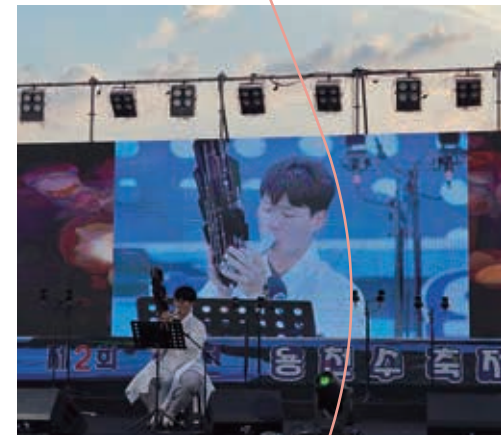
연계 공간 :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  
일자 : 8. 18.(금)

8월 18일, 함덕리 작은 마을에 김시현 예술요원이 찾아갔다. 문화예술연구소 함덕32에서 함덕리 마을주민들을 위해 피리를 연주했다. '樂바리 나도 음악가'란 이름처럼, 음악을 즐겨볼까 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국악기에 대해 소개하며 잘 접할 수 없었던 피리 전통곡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함덕리민 50여 명이 함께 했다.

**공연** 제2회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 1회

연계 공간 : 조천 포구  
일자 : 8. 27.(일)

8월 27일 연결공간 프로젝트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가 열렸다. 조천리에서 활동하는 마을 주민들의 동아리 연주에서부터 전문 예술인의 공연이 다섯 가지 즐거움 중 '들을 락'으로 진행됐다. 이준섭 예술요원은 조천포구의 석양을 뒤로한 채 홀로 큰 무대를 꽉 채웠다. 생황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전통곡에서부터 잘 알려진 가요인 안예은의 '홍연'을 연주하며 조천리 용천수 문화 축제를 빛냈다.







**공연** 제주 돌문화공원 한국 관광 100선 선정 기념  
“힐링 어울림콘서트” 1회

연계 공간 : 제주돌문화공원  
일자 : 9. 23.(토)

9월 23일, 제주 돌문화공원에서는 힐링 어울림 콘서트가 열렸다. 돌문화공원이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기념으로 열린 대형 콘서트였다. 아이돌부터, 가수 범진, 김경호까지 참여하는 큰 콘서트에서 예술요원이 오프닝 공연을 맡았다. 예술요원의 ‘피리즈’인 김시현, 이준섭 요원이 피리와 생황으로 화음을 넣어 최유리의 숲 등 다양한 가요를 준비해 콘서트를 기대하는 천여 명의 관객들을 예열했다.



**공연** 2023 ART&JEOJI 설촌 20주년 기념  
오프닝 공연 1회

연계 공간 :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도립미술관  
일자 : 10. 20.(금)

2022년에도 ART&JEOJI 행사의 오프닝 공연으로 초청되었던 것을 계기로, 올해에도 오프닝 공연에 초청되었다. 올해엔 더 의미가 깊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설촌된 지 20년을 맞는 해라고 한다. 설촌 20주년 행사에서 축하공연을 맡게 되어, 새로운 예술요원이 흥겨운 춤과 음악으로 함께 하고자 했다.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서는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 활동을 시작한 무용 분야의 변영석 요원을 초청해 진도 북춤으로 20주년을 축하해주었다.

**공연·교육** 아랑조를 국악·관악기로 알아보는 국악 2회

연계 공간 :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일자 : 12. 2.(토)

12월의 둘째날,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메끼라 스튜디오’에서 교육과 공연을 함께 진행했다. 주강사로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이자, 예술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이현준 님이 자리했다. 보조강사로는 피리를 함께 소개해주고 들려드리기 위해 김시현 요원이 자리했다. 관악기로 알아보는 국악이라는 특강을 기획해 국악기인 피리와 대금의 역사 등 국악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악기와 양악기가 다른 점은 무언지, 유사한 점은 무엇인지 박자에서부터 악기의 작은 요소들까지 알 수 있었다. 오랜만에 어우러지는 대금과 피리 소리에 추운 겨울의 시작이 잠시나마 따뜻해지는 날이었다.



**공연** 2023 오마주, 오늘 마주하다 1회

연계 공간 : 제주아트플랫폼  
일자 : 12. 3.(일)

오마주!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2023년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자체를 오마주한 공연이다. 1년 간 많이 참여한 예술요원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김시현 님이 함께해 더 의미가 깊다. 계절을 함께 거슬러 공연을 하나씩 돌아봤고, 권역별 문화 소외지역에 공연과 교육을 제공했던 기억들을 되짚었다. 그때의 셋 리스트를 연주하며, 1년을 정리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다. 그치:가치 프로젝트의 1년을 정리하는 의미로 피아노에는 예술가 문효진 님이 그치:가치 프로젝트로 만든 창작곡 등을 연주했다. 공연에서 함께 호흡해주신 도민들과 예술요원, 도내 예술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오마주’했다. 또, 오늘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23년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공연** 마을 잇다 ① 잠수복 벗고 면사포 축하공연 1회

요청 기관·단체 : 비양도 비양리마을회, 생태교육허브물새알협동조합  
일자 : 6. 19.(월)

제주도 동쪽 작은 섬 비양도에는 40여 명의 해녀 삼촌들이 모여 산다. 밤낮 없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희생해왔던 해녀 삼촌들을 위해 2023년 비양리 마을회와 생태교육허브 물새알협동조합에서 “잠수복 벗고 면사포”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11명의 해녀 삼촌들이 이날 비양도 비양분교에서 해녀복 대신 아름다운 신부 드레스를 입었다. 물질만 하며 사시다 웨딩드레스를 입어 보지 못하신 해녀 삼촌들을 위해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금 예술요원 이한준 님을 모셔 제주에서 배를 한 번 더 타고 들어갔다. 소박하지만서도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셨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의 삼촌들을 위해 대금의 고즈넉한 소리와 여유를 선사해드렸다.

**공연** 마을 잇다 ② 귀덕삼촌 생신연의 I, II 2회

요청 기관·단체 : 귀덕1리 경로당  
일자 : 10. 20.(금), 11. 20.(월)

귀덕1리 삼촌들은 매달 20일에 모두 경로당에 모여 생신 잔치를 여신다고 한다. 귀덕 1리 경로당 운영진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삼촌들의 생신을 흥겨운 국악으로 축하해드리고 싶으시라며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셨다. 이런 요청은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가 바라던 읍면 문화 소외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찰떡같은 공연이었다. 10월 20일에는 무용 장르 예술요원인 변영석 님을 모셔 태평무, 진도 북춤으로 흥겨운 발끝을 보여드렸다. 결국 삼촌들의 박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너무 행복해하셔서 다음 달을 기다린다는 삼촌들을 위해 11월에는 판소리 예술요원 분들을 모셨다. 마음만은 소녀 같으신 삼촌들은 춘향이도 되셨다가 심청이도 되시면서, 큰소리로 추임새를 함께 넣어 주셨다. 요원 분들은 흥에 겨워하며 특별히 판소리 기반 트로트 한 곡조도 선물해드렸다. 정겨운 마을 잔치였다.

**공연** 마을 잇다 ③ 국악영역 (소+피리) 1회

요청 기관·단체 : 한림고등학교  
일자 : 10. 25.(수)

제주 한림고등학교에서는 2023년도 2학기에 소금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신청해주신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국악 분야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예술요원의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다. 10월 25일, 약 300명의 학생들이 넓은 강당에 줄지어 앉았고, 이 많은 학생들 앞에 두고 공연한 예술요원은 생황+피리를 준비한 이준섭, 판소리 정진성 요원이었다. 이준섭 요원은 학생들이 국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통곡을 연주하기 전에 대중가요, 팝송까지 선보이며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A Thousand years 같은 영화 OST도 연주하며 여학생들의 연예인이 되어 돌아갔다.

**공연** 마을 잇다 ④ 관음사 템플플레이 1회

연계 공간 : 제주 관음사, 로터스봉사단  
일자 : 10. 29.(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제주 관음사의 로터스 봉사단이 힐링 휴식 행사를 개최했다.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몸의 감각과 듣고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로터스 봉사단은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 이 프로그램 중 ‘공연’을 맡아, 사찰과 어울리는 힐링 음악을 기획해주시기를 부탁했다. 이 소식에 예술요원 김시현 님이 PM 이은경님과 협연을 준비해주셨다. 절과 불상, 산수 절경을 느끼며 멈춰갈 수 있는 잔잔한 전통곡에서부터 싱그러운 음악까지 편곡해 마림바와 협연했다. 사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애정을 듬뿍 받게 된 시간이었다.



## 2023 예술요원 참여 PM과 예술요원이 경험한 프로젝트 이야기

###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PM

이은경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관심사인 환경과 제주에 대하여 클래식 타악기를 기반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연주하는 이은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진행하여 공연하는 단체 '단추프로젝트'의 대표로, 제주도 외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잇을잇단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공연 기획과 교육 기획을 맡아 활동했어요. 공연으로는 호국보훈의 달, 여름을 노래한 사려니숲길 공연, 책방에서의 북 토크, 재즈와 함께하는 공연 등을 진행했습니다. '푸르름 잇다'를 통해 제주 도내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 연주를 진행할 수 있었고, 교육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국악기인 대금과 피리를 배우는 수업을 진행했죠. '마을 잇다' 사진 신청을 받아 제주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국악 연주 관람 및 예절을 배우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재단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피리 예술요원인 시헌님과의 공연이 끝나면 항상 어린 한 두 분께서는 꼭 악수를 요청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른 요원님들도 너무 멋진 연주를 들려주시고 가셨지만 여러 어르신들의 빛나던 눈동자와 벅찬 표정과 함께 악수를 요청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해가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같은 연주자로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시헌님의 힘이 더욱 멋지게 와 닿았나 봐요. 사려니 숲 공연에서는 앵콜로 아리랑을 진행하였는데 마침 시헌님 위로 햇살이 쏟아져 저희끼리도 하늘이 감명한 연주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네요.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올해 활동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흥미로운 기획의 연주와 좋은 공연들이 많아졌다고 느끼는데 공연이 끝나고 더욱 많은 분께서 이 공연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재단에서도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만들어냈고 더 만들고 있지만, 공연을 아직 낯설고 어렵게만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공연과 일상과 함께하는 공연의 비율을 조정해가며 더욱 많이 녹아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과 고민이 들어요. 마을로 잇다, 푸르름 잇다를 통해 마을회관 잔치에도 다녀오고 활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던 청년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조금은 그들이 삶에 예술이 도움을 주고, 녹아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 공연 푸르름 잇다 ① 풍류(風流) 1회

요청인 : 청년예술가 송예슬

일자 : 11. 3.(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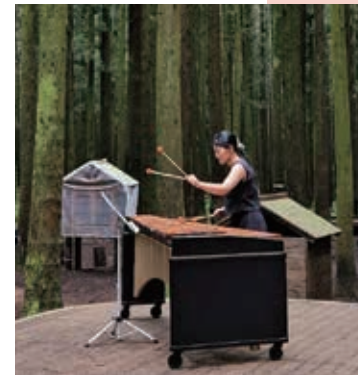
도내에서 활동하는 해금 연주자 송예슬님의 기획과 신청으로 마련된 유일한 푸르름 잇다 공연이다. '멋과 품격이 있는 인생'이란 책을 읽던 중, "풍류란 자연과 일상 속에서 여유롭고 멋지게 한 삶을 즐길 줄 아는 것이다."란 문구에 영감을 받아 이 공연을 기획해 신청했다. 대풍류, 줄풍류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예술요원의 피리즈가 나섰고, 이준섭, 김시현 요원이 함께하며 피리와 생황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어울렸다. 관덕정 앞 정자에서 펼쳐져 관덕정을 지나는 관광객과 원도심 주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공연이었다.

### 공연 마을 잇다 ⑤ 추임새 반 대항전 1회

요청 기관 · 단체 : 애월중학교

일자 : 11. 15.(토)

애월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국악을 알리기 위해 예술요원 판소리 듀오와 피리 김시현 요원이 나섰다. 피리의 김시현 요원이 수려한 한복을 입고 먼저 고고히 피리를 연주했고,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를 열었다. 그 후, 대학을 동기로 함께 다녀 남다른 케미를 뽐내는 판소리의 남상동, 정진성 요원이 마이크를 이어 받았다. 두 사예술람은 공연 전 멘토도 판소리를 하듯 자연스럽게 주도했다. 학생들은 판소리 듀오인 남상동, 정진성 요원의 소리에 맞춰 추임새 대항전을 열며 판소리를 즐겼다. 2학년 학생들은 100명이 채 안 되었는데, 반 대항전을 가지며 천 명도 넘는 것 같은 남다른 추임새를 냈다. 역대급 추임새 소리에 학교 시청각실이 날아갈 것 같았던 날이었다.



2023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참여해준 예술요원 피리즈의 이야기 ①

**예술요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리 예술요원 김시현입니다~!  
김시현 제주에 다닌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니까 이제는 고인물이 되었네요.. 하하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주로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 공연을 했어요!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돌문화공원, 사려니숲.. 제주도 전역에서 많은 관객을 만나 뵈네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올 것이 왔군요. 흠, 저는 꼭 제주도만 오면 항상 사건·사고가 있던 터라 뭘 말씀드려야 할지 골라야 할 정도네요 ㅎㅎ 재작년 처음 활동할 때부터 일이 있었어요. 처음 제주 활동을 왔을 때 같은데, 중문이었을까요. 활동이 끝나고 담당자님과 제주시로 올라오던 중에 눈이 스물스물 쌓이더니 폭설이 내렸어요. 12월이라 그런지 도로가 꽁꽁 얼어 2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담당자님과 핫팩 부여잡고 렉카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 에피소드부터 강렬했던 것 같네요. (하하) 이외에도 김포공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탔지만 결항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침 비행기로 내려갔던 날. 활동 하러 갔는데 그 공간에서 착오가 있어 같은 시간대에 두 팀을 받아, 공연과 리허설이 밀렸던 날. 올라가는 비행기를 예매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제주도민으로 일주일의 반을 살았던 날까지! 여러 에피소드가 있네요. 험난하기도 했지만, 공연하면서 제게 부딪힘이란 단어로 기억에 남는 날도 정말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사려니숲길에서의 공연입니다. 숲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새롭고 설렘이요. 처음으로 해보기도 했고 이런 분위기의 공연은 흔하지 않니까요.

여름이라 습하고 더웠지만, 공연이 끝나자 관객분들이 “너무 듣기 좋다, 피리의 매력을 알았다.”라는 말들을 직접 와서 건네주셨어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행복했던 순간도 이제는 다 추억으로 남아 더 부뚱합니다!



**예술요원이신 시현 님이 볼 때, 제주가 문화예술섬이 되기 위해 더 필요한 점은 무얼까요?**

제주 활동을 자주 오게 되면서,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예술섬을 만드는 담당자 분들과 이야기할 시간도 많았고, 일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볼 일도 많았어요. 이미 너무나도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으시다는 게 느껴져서 더 필요한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신 거 같아요!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올해 활동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올해의 좋았던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연의 다양성’이라 말하고 싶어요. 매년 똑같은 공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내 예술가와 협연도 하고 교육기관에서 공연도 하고 소외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까지, 공연의 대상과 장소 등이 다양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행지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제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주민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점이 부뚱해요. 재즈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에도 내 재즈 예술인과 국악 예술인과의 협연도 딱딱 기획해주시고, 재즈 바에서 공연도 하게 된 것도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또 피리의 새로운 어울림을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덕분에 좋은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X

**예술요원**

이준섭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리와 태평소, 생황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작곡도 하는 이준섭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를 졸업했고 현재는 개인 활동으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2020 년도에 전주대사습놀이 라는 대회에서 기악부 장원에 입상했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활동하게 됐어요. 제주문화예술재단과는 2022년부터 인연이 되어 최근인 11월까지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서 활동했습니다. 다른 활동들도 병행하고 꾸준히 활동하며 올해 12월에는 복무 만료로 전역을 했어요.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교를 찾아가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우리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학생들에게 국악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악기와 관련 역사도 알려주며 국악교실을 진행했습니다. 또 버스킹이나 공연으로 해변, 항구, 책방, 돌문화공원 등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도내 예술가와 함께 연주도 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이 에피소드는 약간은 웃긴 해프닝입니다.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태양 아래, 이호테우해변에서 버스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살갓이 매우 잘 타는 편이라 하루만 땀별 아래에 있어도 피부색이 뒤바뀝니다. 그래서인지 7~8월에 제주에 다녀오기만 하면, 친구나 주변 분들이 피부색이 달라진 저를 보고 놀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직 피부가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ㅎㅎㅎ) 그래도 이 해변에서의 공연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해변에서는 처음 해보는 공연이었는데 무대에서 바라본 관객과 바다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딱 하나를 정할 수 없어요. 제게는 제주 활동 자체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육지에서도 공연을 하며 이곳저곳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결국 주로 서울의 작은 연습실에서 온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적으면 6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을 넘게 방 안에서 연습하고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작년과 올해 제주도를 오가면서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의 땅을 밟을 때는 설렘과 공연장과 수업 장소로 이동할 때 산간 도로와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은 감동적이었어요. 제주에서 하는 공연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로 정할 수 없이 수많은 추억들을 쌓게 해준 제주가 저에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준 것 같습니다.



**예술요원으로 활동한 준섭님이 볼 때, 제주가 문화예술섬이 되기 위해 더 필요한 점은 무엇까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단 직원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공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실제로 그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예술행정과 기획전문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뭔가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직원 분들도 적어서, 힘들어 보이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여러모로 더욱 퀄리티 있는 공연을 선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참여대상자(관객, 교육대상 등)의 사전 선호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내용이 먼저 예술요원에게 자세히 전달되면, 공연, 교육 프로그램 준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의 '맞춤형 프로젝트'를 준비해드린다면, 문화예술섬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ㅎㅎ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올해 활동하신 소감을 말씀해주신다면?**

피리 연주자들은 보통 부전공으로 다른 악기도 다루는데요. 제 부전공 악기인 생황을 제주에 가져가 연주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생황'이라는 분야는, 이제야 연주자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라 서울 같은 수도권이 아니면 직접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국악기 중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악기를 제주에 가져가 연주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제주는 앞으로 저에게 있어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었어요. 예술요원으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술요원**

이현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22년 차가 된 대금 연주자 이현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후 동대학원 학사를 수료했고 현재는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2019년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을 수상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했습니다. 제주문화 예술재단의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는 2022년 2월부터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예술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주에서 진행했고 올해 6월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2022년 도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활발히 공연 활동을 전개했다면, 2023년에는 주로 국악예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예술교육 '반해서 유월 프로젝트'에서 도민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국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술요원 활동이 주로 일회성 예술공연에 국한되어 있는데 도민분들과 긴 시간 호흡하며 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의미 있고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예술요원으로 활동한 현준님이 볼 때, 제주가 문화예술섬이 되기 위해 더 필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제주에서 예술요원 활동을 하며 풍류를 사랑하는 도민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국악을 사랑하는 도민분들과 함께 대금을 불고, 함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도내 예술가와 진솔한 교류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로 타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이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자체가, 제주가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섬이 될 수 있도록 도약하는 데에 큰 정체성이 되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하는 예술요원에게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도민들에게도 만족스러운 '문화예술판'을 깔아주시는 기관은 제주문화 예술재단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5년간 전국을 누비며 예술요원 활동을 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진심을 다해 프로젝트를 기획해 주시는 재단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예술로 행복한 제주가 되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유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올해 활동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국악 예술인으로서 예술을 업으로 하다 보니 '나는 아티스트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예술가라서 예술에서 소외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홀로 연습실에서 수련하듯이 대금을 불다가 제주에 와서 다양한 활동(공연, 교육, 워크숍, 명상 등)들을 하면서 '나도 아티스트였는지'라고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국악인들이 활동 반경이 좁아서 국악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프로젝트로 많은 분들과 예술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주에서의 좋은 기억을 안고 앞으로도 멋진 대금 연주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Thank you JF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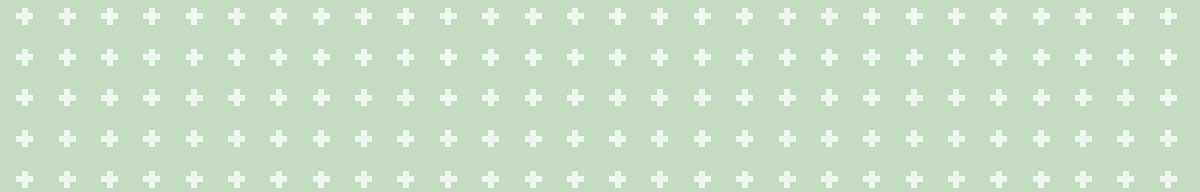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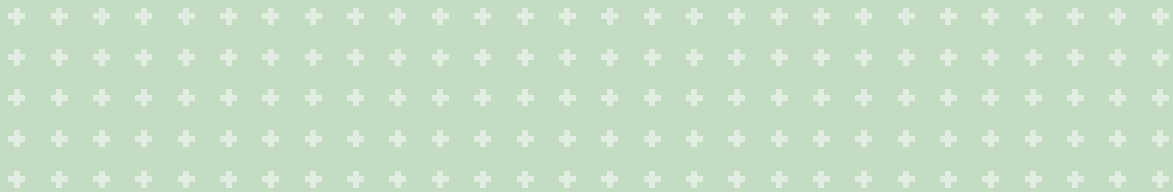


2023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4

내일+  
더하기

Jeju Culture & Art Island



# People 사람들-네트워크, Place 장소-지역, Planet 지구-환경

2023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데이는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로 2일간 진행됐다. 다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교육자, 연구자 등이 모여 네트워킹 데이를 빛내주었다. 올해의 주제는 '사람과 사람, 장소와 지역, 사회적 위기와 문화예술'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성에 기반한 창작활동으로 더욱 강하게 연결되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예술의 역할을 고찰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소 사계 카페(제주시 조천읍 조함해안로 576)  
일정 2023년 8월 11일 ~ 8월 12일(2일간 진행)  
협력 이안 엔터테인먼트

## Day1

People  
사람들-네트워크  
Place  
장소-지역

네트워킹 데이 첫날의 주제는 사람과 장소이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 녹아들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로컬리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강연 1

#### 지역문화진흥법과 로컬리티

로컬리티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로컬리티와 지역사회 문화활동이 어떻게 공진화해야하는지에 대한 강의였다.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만드는 데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창발적 로컬리티 전략"에 대해 주장하는 순간, 자리한 사람들의 눈빛이 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의 윤슬 만큼 빛났다.

패널 **이홍재**(한국지역사회문화연구소 대표)



### 포럼

#### 지역문화자원과 로컬브랜딩

조천리 용천수를 메인으로 포지셔닝하고 문화콘텐츠로 개발을 시작했던 조천리 이장님으로부터 서울 성수동에서 1유로 프로젝트로 로컬브랜딩을 꼭 잡은 최성욱 소장님까지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의 브랜딩 스토리텔러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 지역의 문화자원을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게 브랜딩할 수 있을까.

패널 **최정환**(공간문화센터 대표)

**김규원**(문화관광연구소 연구원)

**최성욱**(건축공간연구소 소장)

**전성환**(시도자사협회 사무총장)

**김병수**(前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센터장)

**강연식**(조천리 이장)



### 강연 2

#### 영화감독 민병훈의 로컬 브랜딩

민병훈 감독의 「약속」이 2023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제주에서 민병훈 감독의 아이와 함께하는 생활을 직접 담은 힐링 시네마다. 민병훈 감독은 이번 강연에서 제주라는 곳을 어떻게 나만의 예술로 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 **민병훈**(영화감독)

### 라운드테이블 1

#### 지역문화주체 '동네책방'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작은 책방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제주에서 활동하는 동네책방, 서점들이 모여,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패널 **서상호**(부산문화재단 본부장) **김예진**(북다마스)

**이진**(그림책방 노란우산) **권희진**(더어마이블루)

**손세실리아**(시인의집) **신의주**(어나더페이지)

**이금영**(키라네책방)

### 라운드테이블 2

#### 지역문화공간과 문화거버넌스

제주도 내에서 문화기획 및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 민간 문화공간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나누고, 예리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 **김종현**(前 더큰내일센터 센터장) **배진섭**(함덕32 대표)

**최성봉**(와이즈모션 대표) **김민수**(문떡 대표)

**양유정**(책약방 대표) **박재완**(라바르 대표)

**조은영**(한뼘책방 대표) **홍민아**(前 문화중개소 대표)



네트워킹 데이 둘째 날의 주제는 '지구'다. 사회적 위기 속에서 문화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눈앞에 다가온 기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며 네트워킹 데이를 마무리했다.

강연 3

사회적 위기와 문화예술

지구가 아프다. 제주에는 이러한 아픈 지구를 담은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문화 예술로 보여주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지구의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헤쳐 보았다. 많은 예술인이 함께 들으며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패널 **변영화**(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 팀장)

오픈워크숍

음악이 있는 청년문화 이야기

예술요원과 제주 청년 예술인이 함께 "기후 위기 속 예술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환경을 노래했다. 예술인으로서 환경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노력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할지에 대한 청년층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주의 맑은 하늘과 바다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환경 보호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모든 참여자가 공감했다. 국악, 포크, 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자연을 노래하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초록을 수놓았다.

곡명 및 순서	공연자
① 생각은 자유 ② 초록	여유와 설빈(황동규, 박설빈)
③ Places we won't walk ④ 상사화 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⑥ A thousand years	예술요원 이준섭
⑦ 아라리	조은별(판소리)×김지연(이어진 키보드)
⑧ Walking with dancing cherry blossom ⑨ Under the sea ⑩ 비자림	이어진(양여진, 김지연)
⑪ 꽃이 피고 지듯이	이준섭×이어진
⑫ 아름다운 나라	이준섭×조은별×이어진

공연 **이준섭**(예술요원) **조은별**(판소리) **여유와 설빈**(포크 듀오) **이어진**(퓨전국악 듀오)



2023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Thanks to

함께한  
사람들

## 모두에게 박수를

### 가치:가치 프로젝트

NEW안덕계곡&NEW저지 예술제 김민수, 이정려, 강문수, 고수일, 김관동, 김선동, 김요나, 김원태, 김정수, 민호기, 박명숙, 박신득, 배준영, 백미경, 서란영, 송은주, 신승희, 오선옥, 오성훈, 유효숙, 이부일, 이재연, 이지영, 이현중, 이호용, 장병일, 조초희, 최인성, 한경희, 황이나 lococo(local contents collect) 프로젝트 강나경, 권희진, 강민경, 박광일, 신상미, 이해령, 허정 **물길 따라 마을 마실** 고진숙, 박재완, 이에람, 강수희, 권정우, 김동연, 김리아, 김보은, 김지건, 김희주, 박향란, 배경완, 신지연, 유규, 임하람, 최용호, 한정완, 홍민아 **살면 살이지쿠다** 박지혜, 신채린, 정보금, 강진순, 고서희, 고순선, 고행렬, 김은희, 오은지, 유산옥, 이한결, 전인자, 최재원 **원도실에서 상상하다-제주환상** 박은희, 조은영, 김영지, 김용필, 문선희, 문성온, 문호진, 박진희, 이경미, 이난영, 이덕중, 이상홍, 임지은, 장혜령, 채수경, 강민수 **회복문화공간 프로젝트** 김신익, 배봉근, 강영철, 김동우, 김정준, 김태엽, 라군선, 박란희, 박설빈, 박주우, 박현서, 안호진, 안희진, 오민지, 오지우, 유현상, 이유정, 정승환, 정종우, 정준석, 조수진, 홍창기, 황동규 **가치찾게 파트너** 김병수, 김종현, 최정환

### 네트워킹 데이

**참가자** 강연식, 권희진, 김규원, 김민수, 김병수, 김예진, 김종현, 민병훈, 박재완, 배진섭, 변영화, 서상호, 손세실리아, 신의주, 양유정, 이금영, 이진, 이홍재, 조은영, 최성봉, 최성욱, 최정환, 홍민아 **협력 이안엔터테인먼트 사회** 고미라, 김지환 **공간 사계야캐(조천)**

### 연결공간 프로젝트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파트너스** 김수정, 김연주, 이승연 **용천수지킴이(지역주체)** 김현지, 김수정, 박하진, 문순열, 안정향, 부좌홍, 박지혜, 유명숙, 정복자, 김현정, 위명자, 한명경, 김정자, 송미영, 장은경, 김은정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 **참여 지역주체** 김은정, 송미영, 홍은미, 위명자, 김성수, 박혜연, 박성진, 이은비, 김선영, 김현정, 노민정, 조정순, 이경미, 박지연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 **지도 및 리플렛 제작** 강선의, 고광진, 권중근, 김기복, 양한솔, 양호영, 이창현, 정수영, 정의득 **조천 지역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김완병, 김택화 미술관, 손세실리아, 안진혜, 이성훈, 한동휴 **조천리장** 강연식

###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예술요원** 김민서, 김시현, 남상동, 박새한, 변영석, 이준섭, 이현준, 정진성, 조남훈 **도내 예술가 무드트리(동주, 우영), 문호진, 박수현, 성지선, 송예슬, 여유와 설빈(황동규, 박설빈), 이어진(양여진, 김지연), 조은별 프로젝트매니저** 이은경,

###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지역문화확산팀** 박진우, 이혜주, 이혁, 김현철, 민지인, 곽철우, 윤태식, 김명선, 염은혜, 이승연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의 시와

2023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Season 3.



펴낸이 김수열

펴낸곳 제주문화예술재단 [www.jfac.kr](http://www.jfac.kr)

발행일 2023년 12월

기획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역문화확산팀

제작 디자인신우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